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련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고추같이 더웠던 폭염도 한물 간듯합니다. 이번 폭염은 사회적인 약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도 괴롭혔습니다. 폭염으로 생사가 오가는 홀몸 노인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북극지방이 섭씨 30도였다고 하니 지구가 온통 불바다 같았습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주일미사 꼭꼭 나오시는 분들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주일 주님 말씀은 율법의 근본정신에 대하여 들려주십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었고, 계명에 무엇을 보태거나 빼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이 주신 계명을 버리고 자신들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느님이 주신 계명에 셀 수 없는 부칙과 금령을 만들어 계명의 정신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제1독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율법을 지키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고, 제2독서에서는 율법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고 권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잘못 된 조상의 전통과 규정에 대하여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조

상들의 전통에 따라 엄격히 지켰습니다. 그 뿐 아니라 잔이나 단지나 늦그릇을 씻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비난하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할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하고 예수님에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조상들의 전통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달리 해석하였습니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마르코 7,8), “너희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란 없습니다.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힙니다.”(마르코7,14-15) 하시며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의 교묘한 질문에 통쾌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고 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마르코7,15,21)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정말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불가에서 내려오는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열심히 불공을 드리는 젊은 스님과 남정네들 사이에서 웃음과 술을 파는 젊은 과부 술집이 절 가까이 있었습니다. 젊은 스님은 평생토록 열심히 불공을 올리고, 젊은 과부는 남자들 속에서 웃음과 술을 팔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락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 했던 스님은 불붙은 지옥에 있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젊은 과부는 극락에서 한 송이 연꽃처럼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 원인은 두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마음의 방향, 갈망의 방향이었습니다. 스님은 열심히 목탁을 두드리고 불공을 드렸지만 마음은 늘 탄데가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여인이 따라주는 술 한 잔을 마셔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목탁을 두드렸으니 헛 불공, 헛 염불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염라대왕께서 그런 마음을 좋게 볼 리 없었습니다. 반면에 젊은 과부는 돈이 있는 남정네들에게 술과 웃음을 팔았지만 마음은 늘 옆집 스님을 부러워했고, 절에 가있었습니다. “스님은 얼마나 좋을까? 새벽마다 정갈하게 몸단장하고 예불을 드리고, 부처님께 꽃을 드리고 경전을 읽으니 나도 그래봤으면”하고 늘

거룩한 갈망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인은 진흙탕 같은 속세에 살았지만 마음으로는 늘 불공드리는 마음으로, 한 송이 연꽃처럼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극락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마음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마르코 7,23) 거룩함의 기준은 몸의 정확이 아니라 마음의 정확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의 근본정신을 언제나 바라봐야 합니다.

정상동 본당 공한영 고스마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햇볕과 시원한 빗물을 받아가며 나무들이 자라고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 말씀도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 말씀이 지닌 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실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정성껏 합시다.

입당성가 : 426번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본기도

†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신명기 4장 1절-2절.6절-8절

안 내 :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가 내리는 주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묵 상 : 우리는 계명을 잘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의 참 뜻을 헤아리는 참된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 답 송 :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제2독서 : 야고보서 1장 17절-18절.21절-22절.27절

안 내 :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묵 상 :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정신으로 그 말씀을 실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복음 7장 1절-8절.14절-15절.21절-23절

강 론 : ‘사람한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1-2쪽)

예물준비성가 :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성체 후 묵상

바리사이들은 규칙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없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신앙은 외적인 법 준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일치해 살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1번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 공소사목 성금

김득순 1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3,91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 림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 목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9월 9일(연중 제23주일) 다인 본당
- 9월 30일(연중 제26주일) 계림동 본당

■ ‘성경 통독 일기’ 연수(의성지구)

- 일시 : 8월 4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14~17시 9월15일, 29일, 10월13일, 27일, 11월 3일
- 장소 : 의성성당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회비 : 1인 4만원
- 대상 : 의성지구 신자

■ 청년연합회 성지순례

- 일시 : 9월2일(주일)
- 장소 : 한실교우촌 및 상주 옥터
- 준비물 : 운동화, 편한 복장, 개인 도시락, 물
- 회비 : 5천원
- 신청마감 : 8월24일(금)까지 사목국으로

■ 공소(농민사목) 수녀·선교사 연수

- 일시 : 9월3일(월) 14:30~4일(화) 점심
- 장소 : 봉화 우곡성지
- 준비물 : 세면도구, 미사준비, 간편한 복장과 신발
- 신청마감 : 8월30일(목)까지 사목국으로

■ 교구 제단체장 모임

- 일시 : 9월8일(토) 15:00~19:00
- 장소 : 교구청 3층 대회의실
- 대상 : 교구 제 단체장 및 간부

■ 여학생 수도 성소자 성지순례

- 일시 : 9월9일(주일)
- 장소 : 천호성지, 및 나바위성지
- 출발시간 : 휴천동 07:30/모전동 08:00
- 준비물 : 운동화, 편한 복장, 미사 준비, 목주

■ 하반기 중·고등부 회장단 모임

- 일시 : 9월9일(주일) 08:30~19:30
- 장소 : 대구대교구 성지순례
- 준비물 : 미사준비, 간편한복장, 운동화

■ 예비신학생 성지순례

- 일시 : 9월16일(주일)
- 장소 : 한실 교우촌
- 대상 :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 준비물 : 운동화, 편한복장, 미사준비, 목주

■ 순교자 성월 기념

변지안(아녜스) 작가와 함께하는 영화 산책

- 주제 : “응답하셨습니다?” (영화 ‘침묵’을 보며)
- 일시 : 9월28일(금) 19:00~21:00
- 장소 : 교구청 강당
- 작가소개 : CJ E&M 작가, 작가 창작집단 <작심> 대표, 영화 <아빠는 딸> 각색, 영화 팟캐스트 <맥거핀> 진행자, <고사리> 제주문화원형 스토리 공모전 대상

■ 갈전성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판매사업

- 건강 썩 미숫가루 가격 : 1kg 15,000원 (청정지역 썩과 유기농 곡물 미숫가루)
- 영양 토마스 고춧가루 가격 - 보통맛 1kg 38,000원/매운맛 1kg 39,000원
- 주문 및 상담 : 정 카타리나 010-8573-5979
- 계좌번호 : 농협 301-0214-6392-11 (재단법인 천주교 안동교구 유지재단)

■ 2018년 평의회 간부 및 Pr. 단장 피정

- 일시 : 9월2일(주일) 10:00~15:30
- 장소 : 가톨릭 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대상 : 각 평의회 간부 및 Pr. 단장
- 준비물 : 활동수첩, 목주, 필기도구 월례회의 준비(해당자)
- 회비 : 1인 1만원
- 문의 : 장주현 프란치스코 010-8851-4467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 일시 : 9월11일~13일, 9월 30일~10월2일 10월4일~7일, 10월10일~12일 10월16일~19일, 10월24일~26일
- 대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 문의 : 064-796-9181

■ 치유. 은사세미나

- 일시 : 9월7일(금) 14:00 ~ 9일(주일) 16:00
- 장소 : 농은 수련원
- 회비 : 10만원
- 신청 : 8월26일(주일)까지 성령봉사회 사무실 010-8964-0958

■ 가톨릭 상지대학교 신입생 수시 1차 모집

- 수시 1차 모집 : 9월10일~9월28일
- 입학문의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우리에게는 생태적 회개와 절제의 덕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는 많은 본당에서 성시간을 지내는 첫 목요일인 9월 6일에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예식을 거행합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2015년에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를 반포하시며, 전 세계의 모든 신자에게 황폐해지고 파괴되어 가는 피조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권유하시고,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하셨습니다. 이후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을 위한 부서는 하느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시간(9월 1일부터 프란치스코 성인의 축일인 10월 4일)에 지역 교회 사정에 따라 적절한 날을 정하여 기도 예식을 거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생태적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회개는 그동안 나와 이웃, 나와 하느님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이웃과 하느님께 잘못된 것을 뉘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연에 잘못된 것도 뉘우쳐야 합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돌보지 않은 것도 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웃 사랑과 하느님 사랑이 중요하듯이 자연 사랑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우리가 생태적 회개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특히 신심이 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내세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우습게 여기고, 또 일부는 수동적이어서 자신의 습관을 바꾸려고 결심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다고 우려하십니다(「찬미받으소서」, 217항 참조).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생태적 회개를 강조하지 않을뿐더러 환경 문제를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목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피조물에 해를 끼치는 파괴적 행동, 지나친 소비, 과식, 그리고 무절제한 에너지 남용 등은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해야 하는 죄라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생태적 회개는 ‘절제의 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절제의 덕은 우리가 함부로 소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으면서, 모든 피조물과 공생할 수 있는 방식을 배우게 해 줍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와 극도의 빈곤이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절제는 적게 소유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며, 세속적이 아닌 영성적 차원의 충만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형제적 만남, 봉사, 능력 개발, 음악과 미술, 자연과의 만남, 기도 안에서 내적 평화와 충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찬미받으소서」, 223항 참조). 생태적 회개가 절제의 덕과 연결되어 성숙해지면, 내 것에 집착하지 않고 적은 것으로 행복해지는 조화로운 생활 양식이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인간다운 사회로 만드는 공동선으로 이끌 것입니다.

생태적 회개와 절제의 덕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분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성인은 하느님의 피조물과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평생을 그들에게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성인의 그러한 삶에서 생태적 회개와 절제의 덕이 어떻게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형제자매인 피조물들을 무심히 파괴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피조물 보호를 위하여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기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받는 형제자매인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지지 않고 생태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 피조물 보호가 우리 신앙인들의 핵심 과제임을 깊이 깨닫고 많은 분이 환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 우 일 주교



내서지수를 높이자

김옥한 리오바
(안동가톨릭문인회)

베란다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했다. 차속에 둔 계란이 익고 삼겹살은 베이컨이 되었다. 지구촌이 연일 뜨겁게 달아오른다. 미국이 42도를 넘어서더니 경쟁하듯 곳곳에서 폭염이 최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사막과 버금가는 47도를 육박하고 이웃 일본과 우리나라 수은주도 40도를 오르내린다.

온열질환자들이 급속도로 발생하고 사망자 수도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나도 그 대열에 합세해 근 한 달을 고생하다 입원까지 했다. 지금 같은 폭염에 정전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더위를 많이 타는 나 자신부터 대책이 없다. 그동안 더위를 피하는데 급급하여 선풍기나 에어컨으로만 견디어 왔다. 시원한 물도 없고, 문명의 혜택이 없다면...,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힌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피서'를 묻는 것이 대표적인 인사말로 자리 잡았다. 우리 조상들은 더위를 피하기보다 견디거나 극복하는 적극적 자세로 당당하게 맞섰다. 조상들은 삼복더위를 어떻게 이겨 냈을까?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벼슬아치와 위급환자, 죄수들에게까지 빙표를 주어 장빙고에서 얼음을 타가게 했다. 남자들은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산간계곡으로 들어가 탁족하면서 더위를 쫓았고, 여자들은 대야에 발을 담그고 강이나 바닷가 백사장에서 모래찜질로 여름을 이겨내었다. 복날 음식으로는 개장국이 대표였으나 요즘은 혐오식품이라는 이유로 대신 삼계탕을 즐긴다. 팔죽이 몸의 열독을 배출하여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하며 초복에서 말복까지 애용되기도 했다. 밀짚모자와 삼베옷과 부채는 대표적인 애용품이었고, 등물과 죽부인도 일조를 했다.

이렇게 자연현상에 순응하며 여름을 극복하던 것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전자제품이 대체하고 있다. 선풍기가 처음 나왔을 땐 선풍기 한 대면 더위는 저만치 물러갔다. 부채로 일으키던 바람이 무한정 나오니 세상 좋아졌다고 만족하며 오히려 여름이 기다려졌다. 그 후 에어컨이 출현하면서 실내 온도를 마음대로 조정하니 여름인지 가을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에어컨에 의존하면서 사람들은 더 무기력해졌다.

더위에 견딜 수 있는 힘에 이름을 붙인다면 내서지수(耐暑指數)라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의 내서지수는 얼마나 될까? 사람,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00을 최대치로 본다면 나는 아마 40이하라고 생각된다. 조금만 더워도 숨 막히고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다면 못 견딜 것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나뿐 아니라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뉴욕에서는 한낮 피크타임 정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일본에서도 80년대에 냉방부하의 급격한 증가로 한낮에 정전이 되어 많은 노약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추위와 달리 더위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그저 찬물을 먹거나 몸에 끼얹어 체온을 조금 떨어뜨리는 외에 별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내서지수를 높여야겠다.

피서에 관한 일화가 있다. 정조 임금은 삼복더위에 더 시원한 별관으로 거처를 옮기자는 신하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다. 시원한 곳을 찾으면 또 다시 더 시원한 곳을 찾게 되어 마음이 간사해지니 지금 있는 곳이 제일 시원한 곳이라 생각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더위를 극복하여 이기는 극서법을 익히는 것이 여름을 지혜롭게 나는 것이라 하였다.

폭서가 계속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을이 다가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저녁엔 제법 풀벌레 소리도 많아졌다.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니 이 더위도 어느 정도 견딜만하다.